


시온 주보

제2295호 2020년 7월 26일(가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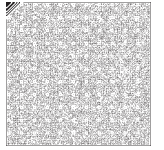
연중 제17주일

발행  천주교 서울대교구 | 발행인 염수정 | 편집 문화홍보국 주보편집팀 | 인쇄 가톨릭출판사

전화 02)727-2114 | 이메일 jubo@seoul.catholic.kr | 홈페이지 http://cc.catholic.or.kr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 서울대교구청 7층 문화홍보국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입당 송 | 시편 68(67),6-7.36 참조

하느님은 거룩한 거처에 계시네. 하느님은 한마음으로 모인 이들
에게 집을 마련해 주시고, 백성에게 권능과 힘을 주시네.

제1독서 | 1열왕 3,5-6ㄱ.7-12

화답 송 | 시편 119(118),57과 72.76-77.127-128.129-130(© 97ㄱ 참조)

◎ 주님, 제가 당신 가르침을 사랑하나이다.

○ 주님은 저의 몫이오니, 당신 말씀 지키기로 약속하였나이다. 당
신 입에서 나온 가르침, 수천 냥 금은보다 제게는 값지웁니다. ◎

○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자애를 베푸시어 저를 위로하소서. 당
신 자비 저에게 이르게 하소서. 제가 살리이다. 당신 가르침은 저의
즐거움이옵니다. ◎

○ 저는 당신 계명을, 금보다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당신의 모든

규정을 바르게 따르며, 저는 온갖 거짓된 길을 미워하나이다. ◎

○ 당신의 법 하도 놀라워, 제 영혼 그 법을 따르나이다. 당신 말씀 밝
히시면 그 빛으로, 미련한 이들이 깨치나이다. ◎

제2독서 | 로마 8,28-30

복음환호송 | 마태 11,25 참조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 나
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

복 음 | 마태 13,44-52<또는 13,44-46>

영성체송 | 시편 103(102),2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김상우 바오로 신부 |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포스트 코로나 신앙

인류는 역사 속에서 재난과 위기를 겪으며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는 경험을 해왔습니다. 흑사병, 산업혁명, 세계대전, 민주화운동, IMF 경제 위기를 거치며 새로운 인식의 틀을 갖추게 되었고, 이전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우리의 신앙생활도 단기간 내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끊이지 않는 세례자 수와 새 사제 수, 신설 본당과 건축물 설립을 예로 들어 봅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를 기점으로 신앙생활은 새로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정상적인 미사 참례에 대한 간절함은 늘었지만, 막상 주일미사에 대한 의무감은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코로나 이후를 살아가는 ‘포스트 코로나 신앙’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연중 제17주일 복음(마태 13, 44-52)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단서를 찾아봅시다. “하늘 나라는 밭에 숨겨진 보물과 같다. 그 보물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다시 숨겨 두고서는 기뻐하며 돌아가서 가진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산다. 또 하늘 나라는 좋은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다. 그는 값진 진주를 하나 발견하자, 가서 가진 것을 모두 처분하여 그것을 샀다.” (마태 13, 44-46)

이 구절을 마치 유사종교에서 중용하듯 집안 살림을 다 처분하여 자신들에게 헌납하라는 강압적 요구에 대한 근거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 비유는 ‘값진 것을 발견함→

가진 것을 다 팔아 값진 것을 선택하고 집중함’의 구조로 요약됩니다. 여기에서 ‘값진 것’이란 무엇을 가리킵니까? 단지 나 자신과 내 가족의 건강, 행복, 성공, 출세, 재산만이 신앙생활을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값진 것’은 아닐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통해 추구해야 할 ‘밭에 숨겨진 보물’과 ‘좋은 진주’란 삶의 의미와 방향을 올바르게 찾게 해주는 것, 하느님의 모상대로 만들어진 인간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들이게 해주는 것, 참다운 기쁨 속에서 살아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하느님 나라를 살아가는 길입니다.

세상이 변한다고 신앙의 내용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앙의 내용을 현시대에 맞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이해하는 방식, 그리고 그 신앙을 살아가는 방식은 유연성 있게 바뀔 수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며 기존 삶의 방식과 인식의 틀이 변화되고 있음을 경험합니다. 이에 맞추어 신앙생활 또한 양적 성장보다는 질적 성장, 다시 말해 각자의 삶 속에서 나보다 더 소외당하는 사회적 약자를 위한 우선적 선택, 복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값진 것’을 선택하고 집중하는 신앙생활이야말로 ‘포스트 코로나 신앙’이 아닐까 성찰해봅니다.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밭에 숨겨진 보물’과 ‘좋은 진주’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이 ‘값진 것’에 얼마만큼의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쏟으며 살고 계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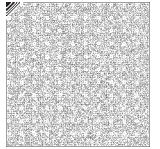


“하느님을 사랑하는 이들, 그분의 계획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모든 것이 함께 작용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로마 8, 28)

히말라야가 융기하면서 만들어 낸, 지구상에서 가장 높고 아름다운 호수 중 하나인 ‘판공초’는 해발 4,350m의 염호입니다. 하느님께서 손수 빛으신 모든 창조물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선물입니다. 하느님을 사랑하는 자, 부르심을 입을 이들에게는 하느님의 모든 것이 서로 도와 그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김대환 안드레아 | 가톨릭사진가회





정다운 프란체스카 | 방송 작가

| 우리는 갓수저다!

“인생 살아보니 무슨 복(福)이 제일인가요?”

우연히 SNS를 통해 보게 된 재미난 제목의 글이 있었습니다.

글쓴이는 최근 인간관계에 회의감이 들었다며, ‘배우자 복, 자식 복, 부모 복, 시댁 복, 친구 복’ 중 최고의 복을 댓글로 뽑아달라고 했습니다. 갑론을박이 이어질 줄 알고, 몇 백 개의 댓글을 쭉 내려서 읽어보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부모 복’을 최고의 복으로 꼽으며 ‘부모님을 잘 만나면 나머지 복이 저절로 따라온다’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는 결국 ‘부모 복이 곧 수저 복이다’라는 등식이 당연한 것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공평하지 않음에 대한 젊은이들의 분노이자 지금 처한 슬픈 현실을 빚댄 계급론에 대한 자조 섞인 푸념일 수도 있는데요. 저는 신앙인의 시선으로 이 사안을 다시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다 나은 삶을 살기 위한 우리들의 노오력(?)은 전혀 소용없는 일일까요? 금수저나 은수저로 태어나지 못했다면, 우리 삶은 희망이 없는 걸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전혀 아쉬워할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우리에게는 너무나 든든한 아버지가 계시니까요. 나의 아버지 하느님은 그 이름도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의 자녀들이 2020년 교황청 공식 집계로만 13억 3,000만 명이니까 조금 많다는 게 함정이긴 합니다만 「부모 복 = 수저 복」의 논리를 대입해보면 우리들은 영락없이 ‘갓수저’인 셈인 거죠. 능력 있고 힘 있는 금수저의 삶을 스스로 버리고 ‘갓수저’로 환승한 사도 바오로도 일찌감치 그 능력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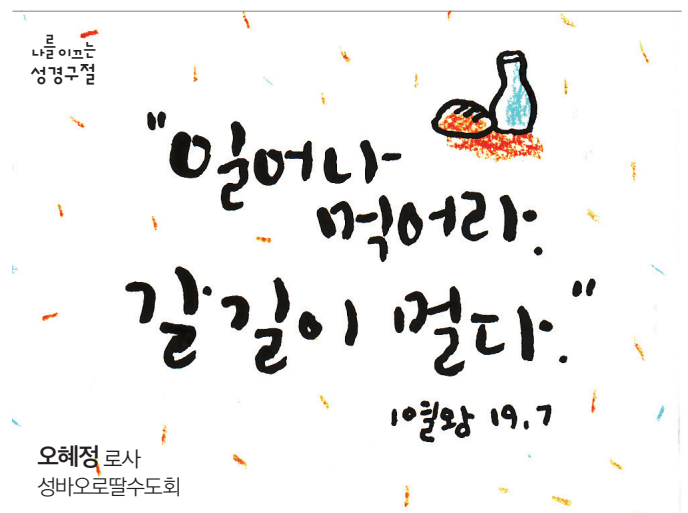
하느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평생을 겸손하게 사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세속적인 기준에만 집중한 나머지 가끔 내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내가 얼마나 든든한 아버지를 등에 업고 있는지를 잊고, 자기 비하에 빠지는 것 같습니다. 출생의 비밀을 혼자만 모르는 주말드라마 주인공처럼 말이죠.

이미 모든 힘의 근원이신 하느님을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계속 상황만 탓하고 있진 않으셨나요? 우리는 이미 그분의 자녀로서 주님의 능력을 대물림 받아 이 세상을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갈 준비가 충분한데 계속 의심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느님의 자녀로 내 삶의 존엄 가치를 높이는 것에 집중해도 모자랄 인생입니다. 과정이나 노력을 하찮게 여기는 풍토에 과감히 일침을 날려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버지 누군지 알아요? 나 갓수저야~!



라이프 오브 파이

| 믿음과 관계를 저버리지 않으면

〈라이프 오브 파이〉에서 열여섯 살 인도 소년 파이는 ‘단지 신을 사랑하고 싶은 마음’에 기독교, 이슬람교, 힌두교를 모두 믿습니다. 그러나 신에 대한 그의 믿음과 사랑은 벵골 호랑이와 단둘이서 작은 구명보트로 태평양을 표류하면서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신은 어디에 있는가. 저 멀리, 아니면 아주 가까이, 아니면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인가. 너무나 간절할 때에 신의 침묵은 무관심인가, 시험인가. 기적은 신이 주시는 것인가, 인간이 만드는 것인가.’

동물들을 가득 싣고 가족과 함께 캐나다로 가던 화물선이 침몰하는 바람에 하루아침에 지옥으로 변한 현실 앞에서 파이는 “난 죽게 될 거야”라고 울부짖습니다. 구명보트에는 언제 자신을 집어삼킬지 모를 호랑이가 으르렁거리고, 바다에는 상어가 어슬렁거리고, 하늘에서는 폭풍우가 몰아칩니다. 절망과 공포가 엄습할 때마다 소년은 신을 원망하고, 신에게 화를 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려 227일 동안 망망대해를 떠돌면서도 끝까지 믿음과 관계만은 저버리지 않습니다. “의심을 인생철학으로 선택하는 것은 운송수단으로 ‘정지’를 선택하는 것과 비슷하다”면서 기도를 통해 신과 대화하고, 내면 성찰로 자신의 존재감과 목적의식을 만들어 갑니다.

호랑이와의 관계와 믿음도 저버리지 않습니다. 혼자가 되면 어느 쪽도 결국 살아남지 못할 것이란 ‘생존방식’을 서로 깨달으면서 공간을 나누고, 시간을 공유하고, 조금씩 소

통하면서, 서로 필요한 존재가 됩니다. 파이가 바다에 빠진 호랑이를 구하고, 호랑이는 파이를 위해 수면 위로 뛰어오르는 물고기를 잡습니다. 아누타섬 사람들의 공존 법칙인 연민, 사랑, 나눔, 협동의 ‘아로파’가 인간과 맹수 사이에서 생겨납니다.

기도와 성찰, 환상만으로 파이는 그 긴 시간을 버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말한 ‘정말 신의 존재를 믿게 하는’



‘거짓말 같은 일’을 호랑이와 함께 한 셈이지요. 호랑이야말로 어찌면 파이가 그토록 찾던 신의 다른 모습인지도 모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멕시코 해안에 도착한 후에 호랑이가 조용히 사라지자 파이가 눈물을 흘린 것은 아닐까요. 신(주님)은 이렇게 늘 가까이에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할 뿐….

원작인 스페인 출신의 작가 얀 마텔의 동명 소설(국내에서는 ‘파이 이야기’로 출간)과 마찬가지로 영화에서도 파이는 자신의 경

험담을 두 가지 버전으로 만듭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인간과 호랑이의 기적과도 같은 표류기’이고, 다른 하나는 그것을 믿지 않으려는 사람들을 위한 ‘구명보트에서 살아남으려는 인간들의 살육전’입니다.

영화는 어느 것이 진실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당신은 어떤 이야기가 더 마음에 듭니까?” 하고 우리에게 맡깁니다. 어차피 영화는 사실이 아닌 허구입니다. 이왕이면 그 안에서 믿음의 힘, 희망과 공존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조금 더 멋진 이야기’를 선택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대현 요나 | 국민대 겸임교수, 영화평론가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1988년 7월29일 임화길 안드레아 신부(77세)
- 1990년 7월30일 오기선 요셉 신부(83세)
- 2011년 7월27일 김상우 프란치스코 신부(42세)
- 2019년 7월29일 한정관 바오로 신부(76세)

서울주보 알림 게재 신청

| 문화홍보국 홈페이지: <http://cc.catholic.kr> |

- ① 교회에서 인가받은 단체만 게재 가능합니다.
- ② 게재 월로부터 한 달 전 첫째 주 화요일부터 선착순으로 접수합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 운동

2020년은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2020년 11월28일까지 '한반도 평화를 위한 밤 9시 주모경 바치기'에 동참해 주십시오(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속적인 기도와 미사 봉헌에 대한 주교회의 2019년 추계 정기총회 결정 2019.10.17).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습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는
6.25 전사자와 유가족을 찾고 있습니다.
문의: 1577-56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교구정일령

언플랜드와 함께하는 제5회 생명수호 체험

내용: <언플랜드>를 읽고 느낀 점을 포함하여 죽음의 문화를 거슬러 생명을 지켜낸 생명수호 체험을 수필형식으로 작성 / 02)727-2350
접수기간: 8월17일(월)~9월11일(금)
원고분량: 200자 원고지 20매 내외(A4 2~4매)
시상내역: 대상 1명(200만원), 우수상 2명(각 100만원), 장려상 5명 내외(각 30만원) / 자세한 내용은 생명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orlife.or.kr>) 참조

2021년 명동성당 혼인예약 안내

1월~2월: 7월29일(수)부터 선착순 방문 접수(화~일)
3월~12월: 추후 혼인추진 예정(추첨 일정 별도 공지)

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요일	13시
	토요일, 공휴일	12시 · 15시
파밀리아 채플	토요일, 주일, 공휴일	11시 · 14시 · 16시

필수준비사항: ① 교적증명서 1부(신랑,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50만원(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 · 카드 불가)
혼인예약 가능 일시는 명동성당 홈페이지(www.mdsd.or.kr) → 혼인성사 → 혼배예약 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 문의: 02)774-1784

갤러리1898 휴관안내 / 문의: 02)727-2336

하계휴관일정: 7월29일(수)~8월4일(화)

경찰사목위원회 선교사 모집

대상: 견진성사를 받은 교우

과정: 교육과정 수료 후 활동부서 파견

활동: 1) 경찰선교부-경찰직원 및 의무경찰들의 신앙생활 동반

2) 유치장선교부-유치인들의 심신안정을 위한 대담 및 선교

때, 곳: 매주(수), 탈리다쿰센터(명동)

문의: 02)742-9471, 3 탈리다쿰센터(명동)

직원모집

수유동성당 사무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교우로 회계 업무와 PC(한글·엑셀 등) 가능한 분 / 문의: 02)999-9701

인원: 사무원 0명(계약직 근무 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 8월7일

(금)까지 우편(우 01043, 서울시 강북구 삼각산로 165 수유

동성당 사무실) 및 이메일(elal225@seoul.catholic.kr) 접수

서울대교구청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회계전공자 경력자 우대

분야: 회계 관련직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

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8월2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서울대교구 성영베르 센터(은평구 진관동 파정의 집) 직원 모집

대상: 세례받은 분, 경력자 우대

분야: 주방근무자 0명(계약직, 추후 정규직 전환 가능)

서류: 응시원서(서울대교구 홈페이지 직원모집 안내에서 다운로드-지원분야 기재), 교적 사본, 본당

주임신부님 확인서(본당 발급) 각 1부

1차 서류 전형, 2차 면접(해당자 개별 통보)

우편(우 04537, 서울시 중구 명동길74 천주교 서울대

교구 사무처) 및 이메일(aoinsa@seoul.catholic.kr) 접수

8월2일(일) 도착분에 한함 / 이메일 문의

수도회 상소모임	때	곳	문의
성공품반외방선교회	8월2일(일) 9시30분~13시	본부(돈암동, 전철 4호선 성신여대입구역)	010-9937-0901
올리베라노 성 베네딕도 수도원	수시	수도원(경남 고성)	010-8798-2986 미카엘 수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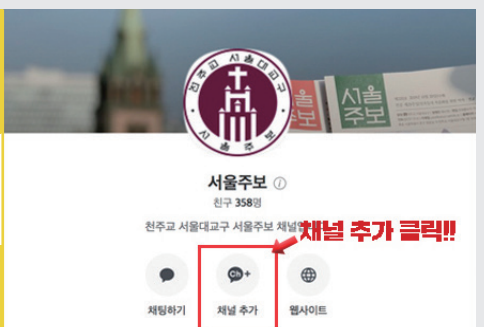
서울주보 카카오톡 채널 개설

서울주보 채널을 구독하시면,
매주 발행되는
서울주보와 교구소식을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주보 채널 QR

카카오톡 채널 추가하는 방법



인준단체 알림

모임

작은예수수녀회 매일 철야기도 봉헌

대상: 중재기도를 필요로 하시는 분
 때: 8월1일~31일 / 문의: 010-5482-3217

첫 토요일 신심 피정 / 문의: 031)952-6324

때, 곳: 8월1일 10시(빨간), 11시·13시(강의), 14시(미사), 파티마 평화의 성당(주최) / 지도: 이한택 주교

제주 성지순례 3일

지도: 안성철 신부(성바오로수도회)
 때, 곳: 8월7일~9일·8월24일~26일·9월11일~13일·9월21일~23일, 제주성지 7곳(성지 해설) / 문의: 064)805-9890 가톨릭사회경제연합 사회협동조합

제주 성 이시돌 자연 순례 피정 / 문의: 064)796-9181

올레, 미사, 기도, 강의 /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1인1실, 넓은 강당과 식당으로 거러두기 가능합니다
 때: 7월27일~29일, 7월31일~8월2일, 8월13일~16일, 8월25일~27일, 8월31일~9월2일

성모송천 전례 피정

때: 8월14일(금) 16시30분~16일(일) 13시30분
 곳: 성베네딕도 왜관 피정의 집(주최)
 회비: 19만원 / 계좌: 대구은행 504-10-102896-6 (계)왜관성베네딕도수도원(접수 후 입금)
 문의: 054)971-0722, 010-6791-0071

돌아보며 깨닫기 / 문의: 010-3173-2665

돌개생활 피정	다음카페: 돌개생활피정	최영민 신부 (예수회)
혼인성소찾기 피정	다음카페: oh oh my half	

성 도미니코선교수녀회 피정(도미니코 피정의 집)

하계 피정	8월14일(금)~16일(일)	문의:
성경 완독 피정	8월21일(금)~29일(토)	010-3340-0201

베네딕도회 성경통독 8일 단식 피정

곳: 성 베네딕도회 화순 수도원(http://hsosb.or.kr)

제80차	8월7일(금)~15일(토)	문의: 061)373-3001, 010-3540-9001
제81차	9월25일(금)~10월3일(토)	
제82차	11월6일(금)~14일(토)	

음악치유 피정 및 음악심리상담 초급 과정

지도: 김경희 신부
 곳: 한국음악치료연구소(전철 3호선 대청역)
 문의: 010-4252-1165 가톨릭성음악클래식기타회

음악치유 피정반	8월14일~28일 매주(금) 13시~17시	회비: 12만원
음악심리상담사 자격증반	8월6일~20일 매주(목) 13시~17시	회비: 15만원

제주 면형의 집 피정(한국순교복자성직수도회)

수도회 수사들과 함께 제주성지·역사·평화순례·미사(성무일도), 나눔, 올레길·옴 트레킹 항공예약 포함하여 접수 가능
 문의(접수): 02)773-1463, 064)756-6009

자연순례 피정	8월6일~9일, 8월17일~19일	
성지순례 피정	8월31일~9월3일, 9월5일~8일, 9월16일~19일, 10월7일~10일	

젊은이를 위한 몸신학 피정

주제: 몸에게서 사랑을 배우다 / 회비: 6만원
 때: 8월7일~9일(2박3일) / 대상: 40세 미만 청년
 문의: 010-5313-0241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 수녀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말씀으로 기도하기)

내용: 유덕한 아바스와 함께하는 자연 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때, 곳: 매주(토) 14시~(일) 14시, 올리베타도 성 베네딕도 수도회(주최, 경남 고성군) / 문의: 010-2816-1986

젊은이 성체조배의 밤(사랑이 피는 기도모임)

고해성사, 미사, 성체조배 / 대상: 20세~39세
 때, 곳: 8월1일(토) 18시(미사), 가톨릭회관 1층 강당
 문의: 02)6253-3373, 010-8360-3700

'꽃꽃' 영상' 관상 기도 피정·새사제 제미타(가톨릭동정녀회)

미사: 김현직 신부, 김학준 신부 / 010-3332-8789
 때, 곳: 8월2일(일) 14시~17시, 가톨릭출판사 요셉홀 (전철 2호선 충정로역 5번 출구, 직진 2번) / 대상: 누구나

교육

새김전각 수강생 모집(가톨릭글씨문화연구회)

인스타그램: @stephen_yoo67 / 문의: 010-2036-3590(문자)

목주 반지 목걸이 교육생 모집(가톨릭목공예)

카페(cafe.naver.com/cmc04) 참조 / 문의: 010-5234-5044

커피바리스타 교육(여성생활연구원) / 문의: 02)727-2472

(사)한국커피협회 수석심사위원 직강 홈카페마스터자격증반

1:1 온라인 복음화학교

비대면 우편방식 또는 SNS 방식 / 문의: 02)2096-0410, 0411 새천년복음화사도직협회 교육국
 대상: 현장 수업을 받기 어려운 희망자는 누구나(해외 교민, 지방 거주자, 서울 거주자 중 현장 참석 어려운 분)

커피바리스타 교육(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교육과정: 에스프레소, 라떼아트, 홈바리스타, 창업, 로스팅, 자격증(주1회·12주) / 교육문의: 010-9040-8306, 010-2511-6845(http://club.catholic.or.kr/barista)
 담당: 이경훈 신부, (사)하랑·가톨릭바리스타협회

서울형 대안교육기관 바라지 신입생 모집

대상: 학교 박해(학업중단·위기) 청소년(중·고등학생)
 검정고시교육, 대안교육(인문·목공·3D프린팅·제과제빵·바리스타·뷰티 등), 문화자립교육, 진로탐색 및 상담, 동아리활동 / 블로그: https://blog.naver.com/baragee2016
 지원교사모집: 사진, 영상편집 및 제작, 인테리어 재능기부
 곳: 살레시오 미래교육원(주최, 신원3동) / 02)2691-6543

예수회센터 영성 강좌(9월 개강)

이 밖의 다양한 강좌에 관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문의(접수): 02)3276-7733(http://center.jesuits.kr)

영성과 철학상담- 아픈 영혼을 철학으로 치유하기	매주(화) 19시~21시	박병준 신부, 홍경자 박사
어떻게 실제로 기도하고 성찰할 것인가?	매주(수) 19시30분~21시 15분, 매주(목) 14시~16시	권오면 신부
행복한 '황가정' 어떻게 실제로 가능하게 할 수 있는가?	첫째·셋째주 (금) 14시~16시	손앤디, 배가 타라나 부부

미사

첫 토요일 신심미사(파티마의 세계사도직)

때, 곳: 8월1일(토) 9시30분~12시(9시30분 켈기도·10시45분 미사), 가톨릭회관 3층 강당 / 02)756-3473

7월 영화 치유 미사

내용: 단편영화 상영, 나눔, 미사 / 회비 없음
 때, 곳: 7월29일(수) 오전 10시, 가톨릭회관 205-2호
 문의: 0507-1424-0712 가톨릭영화인협회

오기선요셉신부 30주기 기일미사·월례미사

집전: 황인국 몬시뇰, 오웅진 신부, 김정수 신부 외 사제단 / 문의: 010-8982-9819
 때, 곳: 7월30일(목) 15시, 가톨릭회관 1층 강당

인내

서천군립노인요양병원 입원 안내

천주교 대전교구 운영 / 주일·평일 미사 및 봉성체 보건복지부 지원 '치매안심병원' 운영 / 041)950-1008

도미니코 수녀원 영성센터 / 문의: 010-5604-1882

전문심리치료: 영적·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부 및 가족 치료, 개인(우울·공황·대인기피·강박) 종합심리검사

성가정임양원(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 문의: 02)764-4741~3

국내입양 상담 및 입양 전까지 아동을 사랑으로 돌볼 위탁부모를 모집합니다 / www.holyfca.or.kr

성빈센트정신분석상담센터

대상: 성인, 청소년, 아동, 부부, 집단상담
 내용: 대인관계 갈등, 성격문제, 우울, 강박, 정서불안
 곳: 성북구 아리랑로62 / 문의: 010-4261-1113
 차영임 수녀(성빈센트드롤자비의수녀회)

중독 중점 치료 '카프성모병원' / 문의: 031)810-9100

중독치료를 넘어 진정한 치유와 올바른 영성 회복으로 중독자의 인간다운 삶과 생명을 지키겠습니다
 때: (월·금) 9시~17시, 야간진료 매주(화) 18시~20시30분
 홈페이지: www.karf.co.kr / 곳: 경기도 일산

진애인 가족치료연구소

곳: 명동 / 02)587-9207(http://jinacin.com) 토요상담 가능

개인심리치료	정서·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섭식장애 등
가족심리치료	부부, 가족(자녀) 갈등과 문제, 대인관계 부적응 등

성라파엘심리상담소

때: (월·일) 주말상담 / 070-4248-7573, 010-3008-4627

가족세우기	매주(토) 14시~16시 소그룹(건강한 대화)
전문심리치료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부모 및 가족 개인(분노·우울·불안·부적응) / 종합심리검사

전·진·상 영성심리상담소 / 문의: 02)726-0700

자아의 통합과 영성	9월3일~12월17일 매주(목) 10시~13시 9월5일~12월19일 매주(토) 10시~13시
생활속의 심리학	마음과 상담-9월3일~10월22일 매주(목) 13시~15시, 몸 트라우마, 정서에 대한 이해-일정 추후공기 매주(목) 13시~15시
전문심리상담	가족, 개인, 부부, 불안, 우울, 분노, 공황장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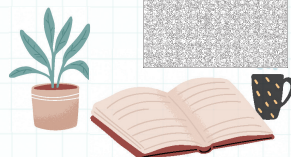
유관단체 알림

다솜터 심리상담소

상담: 공황, 불안, 우울, 가족, 부부, 영성
 소장: 이찬 신부(골롬반회, 심리학박사, 상담심리전문가)
 문의: 010-9295-5912 / 홈페이지: www.dstcoun.net



무더위를 잊게 해 줄 휴가철 추천 도서 책 속으로 떠나는 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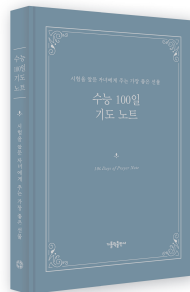


언플랜드

생명의 소중함 앞에서
무릎 꿇은 이의 고백

애비 존슨, 신디 램버트 지음
권새봄, 이보연 옮김 | 13,000원

낙태 클리닉을 운영하는 기관인 가족계획연맹에서 8년 넘게 일하며 자신이 하는 일이 위기에 처한 여성들을 구하는 길이라 굳게 믿어 온 애비 존슨.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낙태 수술 장면을 직접 목격하게 되고, 그 한 순간이 곧 모든 것을 바꾸게 됩니다. 애비 존슨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지금 만나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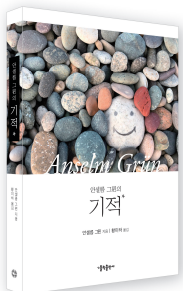


수능 100일 기도 노트

소중한 이의 앞날을 응원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

가톨릭출판사 편집부 지음
14,000원

중요한 시기를 보내는 수능 수험생을 위해 무엇을 해 줄 수 있을까요? 이 노트는 기도가 필요한 수험생을 위해 시험이 다가오는 100일 동안 하느님께 은총을 청하며 작은 정성을 바치고 매일 묵상과 기도를 실천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성스레 노트를 채우며 소중한 이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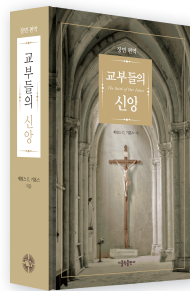


안셀름 그윈의 기적

평범한 일상에서 기억하고 싶은
하루를 만나는 순간

안셀름 그윈 지음 | 황미하 옮김
17,000원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의미를 찾기는 힘들고, 하루하루 점점 무더져만 간다고 느낀다면 지금 《안셀름 그윈의 기적》을 만나 보세요. 영성 심리 상담의 대가인 저자, 안셀름 그윈 신부님이 선사하는 새로운 시각을 통해, 삶의 경이로움을 다시 배우고 특별한 오늘 하루를 만들어 갈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교부들의 신앙 (개정)

이천 년 가톨릭 정신을 담아낸
그리스도교 불후의 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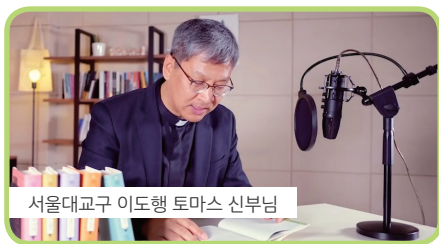
제임스 C. 기본스 지음 | 장면 편역
25,000원

그리스도교 신앙의 본질을 자세하고 명확히 설명하여 많은 개신교도를 다시 가톨릭으로 돌아오게 만든 명저, 《교부들의 신앙》이 개정판으로 출간되었습니다. 보편된 교회의 가르침, 성경, 전례와 성사 등 가톨릭 신앙의 정수를 담은 이 책을 통해 가톨릭 신앙의 넓고 깊은 아름다움을 재발견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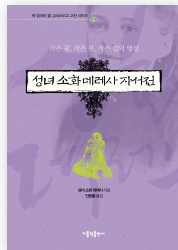
◆ ◆ ◆ 그리스도교 고전 시리즈를 YouTube 오디오북으로 만나보세요! ◆ ◆ ◆

준주성범

토마스 아 켐피스 지음 | 윤율수 옮김 | 14,000원



서울대교구 이도행 토마스 신부님



성녀 소화 데레사 자서전

성녀 소화 데레사 지음 | 안응렬 옮김 | 13,000원



성 도미니코 선교 수녀회 하연주 스텔라 수녀님



소리로 듣는 '꼭 읽어야 할 그리스도교 고전 시리즈' : YouTube에서 '가톨릭북' 검색 또는 QR코드에서 연결됩니다



774-1784(☎)
753-1784(FAX)

☎ 본당 연례회 ☎
010-6375-1784

진주교시울대교구 주교좌명동대성당

주 임 조학문(바 오 로) 신부
수석부주임 지상술(힐 라리 오) 신부
부 주 임 손태진(바 오 로) 신부
부 주 임 심승우(마르티노) 신부
부 주 임 유영주(세례자요한) 신부
보좌 김주신(멜 키 올) 신부

◎ 명동대성당 평일·주일미사 시간 (6월 21일부터 적용)

요 일	미사시간	미사장소
월~토	10:00, 18:00	대성전
일요일	08:00, 10:00, 11:00, 12:00 14:00, 16:00, 17:00, 18:00 (※영어미사 없음.)	

※토요일 오후 6시미사는 '주일미사'입니다.

※제은 축정과 신원 확인 등의 사전조사 후 이상이 없을 시 미사 시작 30분 전부터 입장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거리 유지를 위해 미사 한 대의 참례인원은 250명 내외로 제한됩니다.

※주일미사 참례자를 위한 지하주차장 주차요금 감면을 원하시는 분들은 인적사항을 작성하실 때 '전체 차량번호'를 꼭 적어 주십시오!

◎ 성소후원회 미사

성소후원회는 사제가 되기 위해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신학생들을 후원하는 단체입니다. 사제 양성을 위하여 교우 여러분의 많은 기도와 참여 바랍니다.

· 성소후원회 미사 : 매월 마지막 주일 오전 11시 / 대성전

◎ 청소년봉사부와 주일학교 관련 안내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년도 첫영성체는 취소되었습니다. 또한 주일학교 여름캠프는 없을 예정입니다. 초등부·중고등부·솔봉이 주일학교 개학은 추후 별도 공지 시까지 계속 보류됩니다.

◎ 8월 유아세례·병자영성체·성시간 없습니다!

◎ 8월 예비신자 교리반

명동대성당에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6개월 과정의 교리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8월 입교 시 세례성사는 2021년 2월에 거행되며, 예비신자환영식은 8월 2일(주일) 오후 2시 교구청본관 401호에서 있습니다.

교리반	시 간	장 소	강 사
토요반	오후 4:00	교구청 본 관 401호	이 안젤라 수녀

※사전 접수 없이 8월 2일 환영식 당일에 신청 가능하며, 선착순 60명만 접수합니다!

◎ 하절기 미사 참례 복장과 자세

미사는 하느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미사 참례 시 슬리퍼, 반바지, 민소매 옷은 피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당 내에서는 모자를 벗도록 합니다. 또한 기도서, 성가책, 주보 등으로 부채질하는 행동도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 기부 진시 ◆◆

명동성당 중립계회 2단계 기금
(7월 13일 ~ 7월 19일 : 100,000원)
누계 : 1,533,825,123원

남 준 우 : 100,000원

기부 진시에 참여해주신 신자분들의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명동성당의 내일을 위하여 봉헌 해주신 신자분들의 정성은 소중히 기억될 것입니다.

· 기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본당 사무장 ☎ 010-9072-5883

◎ 2021년도 명동대성당 혼인미사 예약 안내

2021년 1월과 2월 혼인미사 예약을 7월 29일(수)부터 선착순으로 방문 접수합니다. 2021년 3월부터 12월까지 혼인미사 예약은 예년과 같이 추첨으로 진행되며, 추첨 일정은 추후 별도 공지합니다.

혼인장소	요일	시간
대성당	금	13시
	토, 공휴일	12시, 15시
파밀리아 채플	토, 일, 공휴일	11시, 14시, 16시

·방문접수시작 : 2020년 7월 29일(수) 09:00~18:00
월요일은 성당 사무실 휴무이므로 화~주일 09:00~18:00 사이 방문 요망
·필수준비사항 : ① 교적증명서 1부 (신랑, 신부 중 1명)
② 예약금 : 50만원 (현금 또는 수표 / 계좌이체·카드 불가)

·문의 : 본당 사무실 ☎ 774-1784

※1월과 2월 혼인미사 예약 가능일시는 본당 홈페이지(www.mdsd.or.kr)→미사와 성사→혼인성사→혼배 예약일정을 참고해 주십시오.

※홈페이지 본문에 공지된 혼인 관련 안내문과 이행 조건들을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혼인 비용은 2020년 7월 기준이므로 예약 이후 변동될 수 있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우리들의 정성 》

· 교무금 (7/13-7/19).....24,639,000
· 연중 제 16 주일 현금.....12,563,400
· 감사현금 (7/13-7/19).....1,620,000

김 루시아 / 김 안나 / 박 아네스
양 엘리사벳 / 염 마리아 / 이 미카엘라
이 사라 / 임 사무엘 / 장 마리아 / 정 마리아
정 소화데레사 / 한 미카엘라 / 현 베로니카
익명(1)